

DDP 간송전시관 보안인력 수정배치 案

2017. 11. 27

□ 제안 배경

- 간송C&D 요청으로 2018년 간송전시관 보안인력을 총 15명으로 운용할 계획이었음
 - * 2018년 시급 인상으로 인건비는 올랐으나 보안용역비 2017년과 동일해 기존 17명에서 15명으로 축소
- DDP, 예산부족으로 보안인력을 15명 → 14명으로 줄여줄 것을 요청중인 상황

□ 수정배치 案

- 현재 검토 중인 방안 : 비상구 앞 고정인력 철수, 비상구 가변적 폐쇄조치
 - 비상구를 가변적으로 폐쇄하고, 보안인력을 철수할 경우 화재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관람객을 비상구로 유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
 - 또한, 배치된 인력이 고정적으로 감시하는 구역에 대한 공백을 채우기 위해 전시관내 보안인력 중 고정감시 1명을 순찰형태로 운용해야 하는 등 보안운용상 부담감 초래
- 제안 방안 : 수장고 원격 출입통제 시스템 구축 → 수장고 앞 보안인력 철수
 - 신분확인용 CCTV(1대)와 원격 출입통제시스템을 별도로 구축, 수장고 출입 시 통신장치를 통해 보안관제실을 호출하면 관제요원이 신분확인 후 원격으로 문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변경
 - * 시스템 구축비용 약 300만원
 - 원격 출입통제 구축 시 보안인력을 배치한 것과 동일한 출입통제가 가능하고, 전시관 배치인력을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음
 - 다만, 연구원 등 수시출입자들이 기존보다 출입이 번거로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